

현안과제연구

2014-096

2013년도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변화 및 성과 분석

연구수행 : 조영재

2013년도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변화 및 성과 분석

연구수행 : 조영재 (농촌·농업연구부장)

목 차

I. 연구개요	/ 1
II.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분석	/ 2
III. 요약 및 결론	/ 13

I

연구개요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90년대 이후 농정의 방향이 단순한 식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 중심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간 격차 해소 등을 반영하는 농어촌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
- 이와 함께 다양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,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사업을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옴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
-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어촌개발 및 내발적 지역 발전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
- 충청남도에서도 민선5기의 주요 시책으로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가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,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마을만들기(마을발전계획 수립)에 참여한 주민의 의식변화 및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

2. 연구내용 및 방법

- 첫째, 2013년도 마을만들기(마을발전계획 수립)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만들기의 만족도 및 의식변화, 과제 등을 분석함
- 둘째, 2012년 참여주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2013년 분석 결과를 비교·분석함
-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의 향후 과제를 도출함

Ⅱ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의식 분석

1. 조사 개요

1) 목적

-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해 참여하였던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
- 특히, 201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전과 후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,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조사·분석함

2) 방법 및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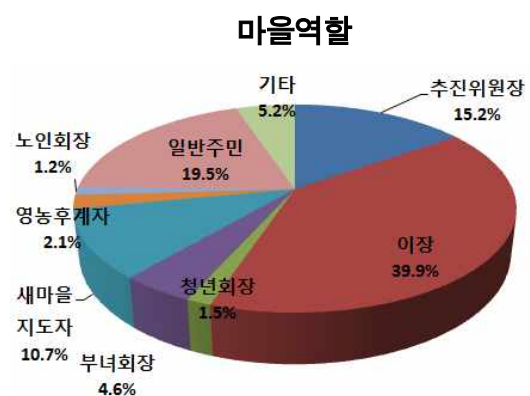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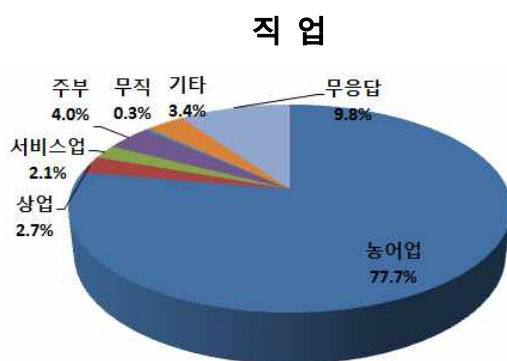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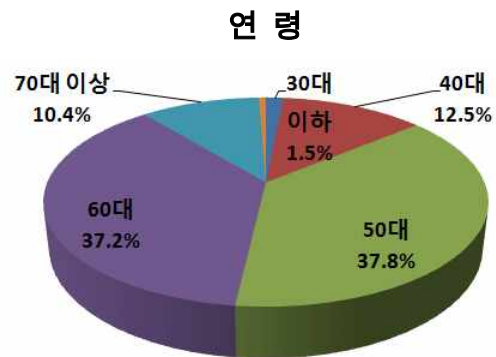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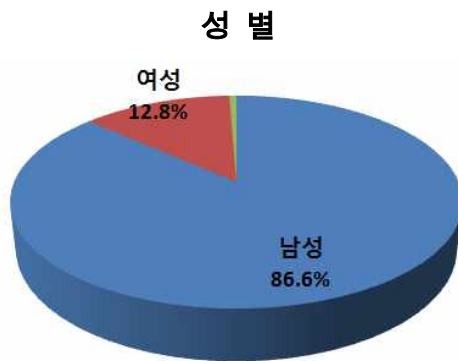
- 충남도 및 시·군의 행정계통을 통하여 2014년 5월 ~ 6월 약 2개월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으며, 15개 시군별로 201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마을주민 중 리더 2~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됨
- 그 결과 250개 대상마을 중 172개 마을의 328명이 조사되어 대상마을 기준 68.8%의 응답률을 보였으며, 시군에 있어 아산시와 부여군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

시·군	2013년 대상마을 수(A)	조사 대상마을 수(B)	설문대상자 수	비율 B/A (%)
계	250	172	328	68.8
천안시	10	10	20	100.0
공주시	20	11	22	55.0
보령시	14	14	28	100.0
아산시	20	-	-	0.0
서산시	19	17	25	89.5
논산시	25	25	50	100.0
계룡시	3	3	6	100.0
당진시	17	4	5	23.5
금산군	16	16	32	100.0
부여군	25	-	-	0.0
서천군	14	12	24	85.7
청양군	14	14	24	100.0
홍성군	22	15	30	68.2
예산군	17	17	34	100.0
태안군	14	14	28	100.0

2. 조사 대상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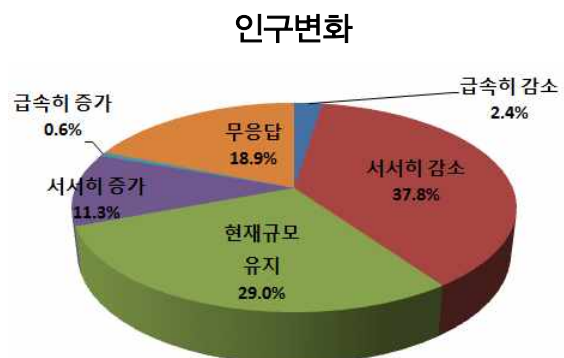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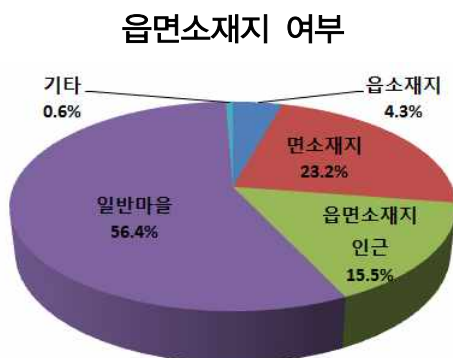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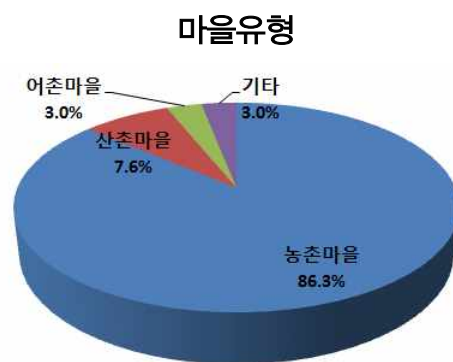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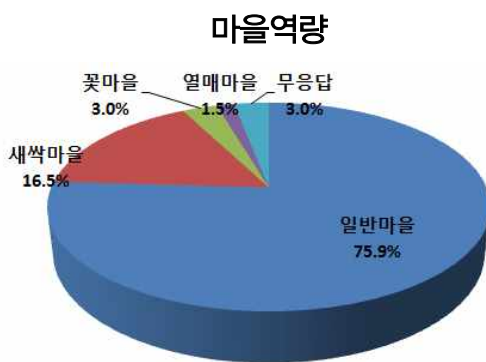
1) 일반현황

- 성별은 남성이 86.6%, 여성이 12.8%를 점유함
- 연령은 70% 이상이 50~60대(75.0%)로 구성되고, 40대 이하가 14.0%임
- 직업은 대다수가 농어업(77.7%)에 종사하고 일부 상업(2.7%)과 서비스업(2.1%)에 종사하고 있음
- 마을내 역할로는 이장이 39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일반주민 19.5%, 추진위원(장) 15.2% 등으로 나타남



2) 마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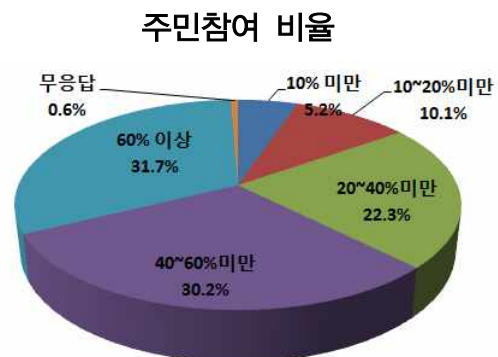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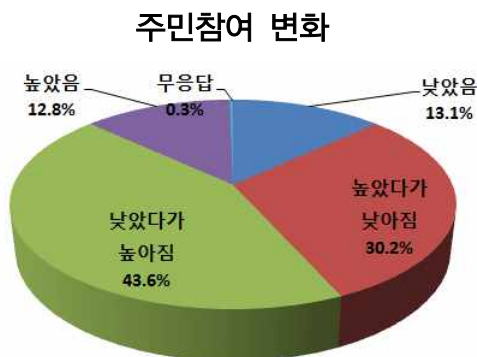
- 마을역량은 75.9%의 마을이 일반마을에 해당되고 16.5%가 새싹마을, 그 외 일부 마을이 꽃마을(3.0%)과 열매마을(1.5%)에 해당됨
- 마을유형은 농촌마을이 86.3%로 가장 많고, 그 외에 산촌마을 7.6%, 어촌마을 3.0%로 조사됨
- 조사대상 마을 대부분 읍면소재지와는 이격된 일반마을(56.4%)에 해당되며, 23.2%는 면소재지에 위치한 마을임
- 15.5%의 마을은 읍면소재지 인근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, 그 외에 읍소재지는 4.3%로 조사됨
- 인구변화를 보면 40.2%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, 11.9%는 서서히 또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
- 전체 대상마을 중 29.0%의 마을은 인구가 현재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

3.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 및 테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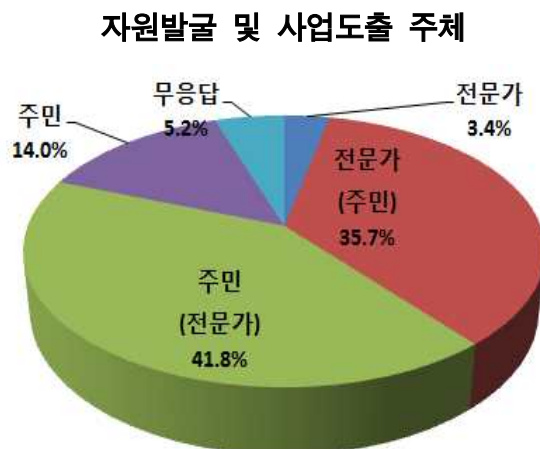
1) 주민참여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상에서 주민의 참여도는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졌다는 비율이 43.6%로 가장 높았으나, 반면 처음에는 높았으나 점차 낮아졌다는 비율도 30.2%로 높게 나타남
- 처음부터 끝까지 높았던 주민은 12.8%이며, 처음부터 끝까지 낮았다는 주민도 13.1%로 나타남
- 주민참여 비율은 60%이상의 주민참여를 보였던 마을이 31.7%, 40 ~ 60% 미만의 비율은 30.2%, 20~ 40% 미만의 비율은 22.3%로 나타났으며, 주민참여 비율이 20% 미만이었던 마을도 10.1%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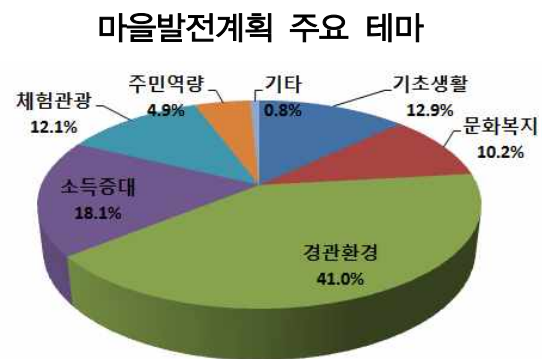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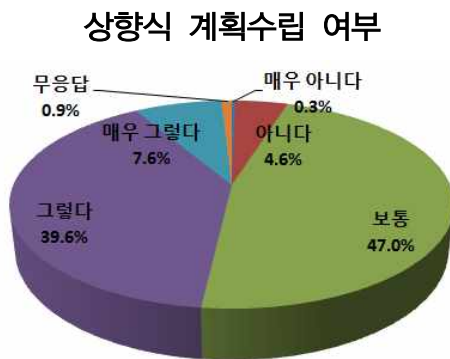
2) 마을자원 및 사업 도출 방법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을 자원발굴 및 사업도출 방법으로 대부분의 마을(55.8%)이 약간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제시하였거나 도움 없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됨
- 반면, 모두 전문가가 제시하였거나 대부분 전문가가 제시한 마을도 39.1%를 점유하고 있음



3)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수립 여부 및 마을발전계획 테마

- 마을발전계획이 주민주도의 상향식으로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43.4%의 마을이 상향식으로 수립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, 상향식으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응답도 11.3%를 점유함
- 마을발전계획의 주된 테마로는 마을경관 및 환경의 정비가 40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다음으로는 소득사업의 추진 18.1%, 기초생활환경의 정비 12.9%, 농촌체험·관광의 추진 12.1% 등의 순서로 나타남
- 한편, 농촌체험·관광은 주요테마로 제시한 마을이 18.1% 이지만, 부수적인 테마로 제시한 마을까지 고려하면 과반수이상의 마을에서 농촌체험·관광을 마을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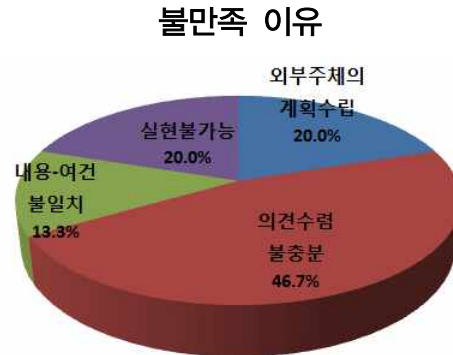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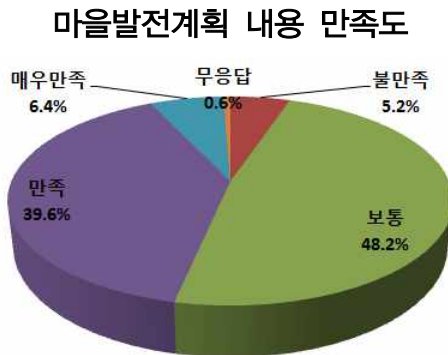


4. 마을발전계획 내용 및 마을학교 운영에 관한 만족도

1) 마을발전계획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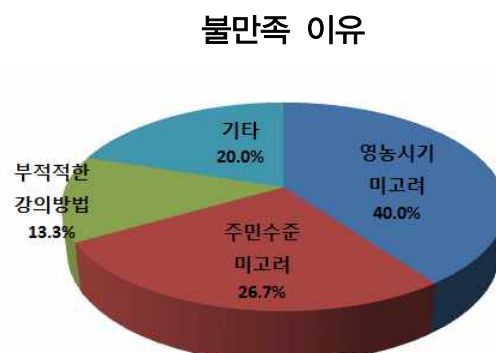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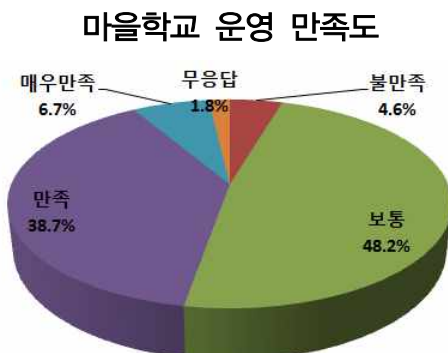
-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의 내용에 대해 마을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주민은 46.0%로 나타났으며, 보통은 48.2%로 나타남
- 한편,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주민도 5.2%로 나타났으나,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① 전체 주민의 합의가 없이 소수 몇 명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다(46.7%), ② 주민 스스로의 계획이 아닌 외부(전문가 또는 컨설팅업체)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다(20.0%), 사업내용 및 규모, 사업비 등에 있어 실현

불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다(20.0%) 등의 순서로 응답됨



2) 마을학교 운영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

-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 마을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주민은 45.4%로 나타났으며, 보통은 48.2%로 나타남
- 한편,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주민도 4.6%로 나타나, 전반적으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
-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는 ① 농번기 등 영농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일정 (40.0%), ② 주민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용(26.7%), ③ 부적절한 강사초빙 및 강의방법(13.3%) 등의 순서로 응답됨



3) 시·군별 마을발전계획 만족도 변화

- 2013년 시·군별 마을발전계획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천안시, 계룡시, 금산군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
- 2012년 마을발전계획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여 2013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함
- 시군별로는 천안시, 서산시, 당진시, 금산군, 예산군은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, 나머지 시군은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

시·군	마을발전계획 만족도(2013년)	순위	마을발전계획 만족도(2012년)	만족도변화 (2013-2012)
계	3.51	-	3.42	0.09
천안시	4.15	1	3.65	0.5
공주시	3.41	8	3.50	△0.09
보령시	3.54	6	3.61	△0.07
아산시	-	-	3.30	-
서산시	3.56	5	2.95	0.61
논산시	3.29	11	3.49	△0.20
계룡시	3.83	2	3.67	0.16
당진시	3.40	9	3.35	0.05
금산군	3.66	3	3.18	0.48
부여군	-	-	3.37	-
서천군	3.08	13	3.39	△0.31
청양군	3.42	7	3.54	△0.12
홍성군	3.27	12	3.55	△0.28
예산군	3.62	4	3.38	0.24
태안군	3.39	10	3.74	△0.35

4) 시·군별 마을학교 운영 만족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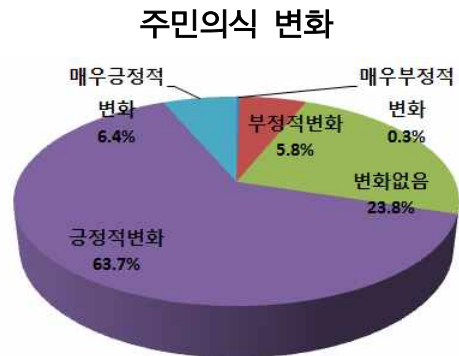
- 2013년 시·군별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천안시, 계룡시, 서산시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
- 2012년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여 2013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함
- 시군별로는 천안시, 보령시, 서산시, 계룡시, 당진시, 금산군, 예산군은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, 나머지 시군은 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

시·군	마을학교 운영 만족도(2013년)	순위	마을학교 운영 만족도(2012년)	만족도변화 (2013-2012)
계	3.53	-	3.39	0.14
천안시	4.20	1	3.20	1.00
공주시	3.19	12	3.67	△0.48
보령시	3.57	6	3.32	0.25
아산시	-	-	3.33	-
서산시	3.67	3	3.17	0.50
논산시	3.31	11	3.39	△0.08
계룡시	3.83	2	3.20	0.63
당진시	3.60	5	3.40	0.20
금산군	3.66	4	3.21	0.45
부여군	-	-	3.31	-
서천군	3.13	13	3.48	△0.35
청양군	3.41	8	3.42	△0.01
홍성군	3.40	9	3.61	△0.21
예산군	3.56	7	3.29	0.27
태안군	3.32	10	3.63	△0.31

5. 마을주민의 의식 변화 및 내용

1) 마을주민 의식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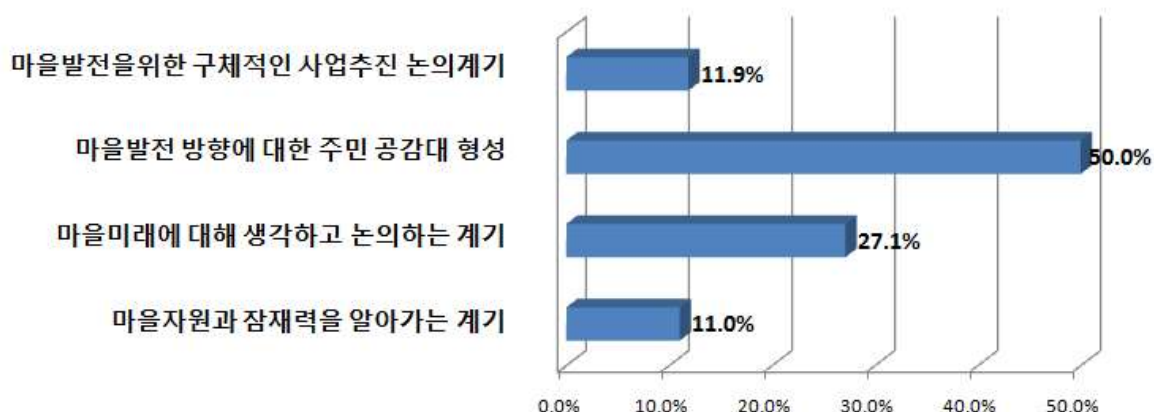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·후를 비교할 때 마을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, 전체의 70.1%의 주민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응답하였고, 23.8%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
- 반면,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6.1%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



2) 긍정적 변화 내용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에 비해 수립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으로는 ① 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(50.0%), ② 마을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주민들 간에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(27.1%), ③ 마을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논의를 갖게됨(11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마을발전계획 수립 후 긍정적 변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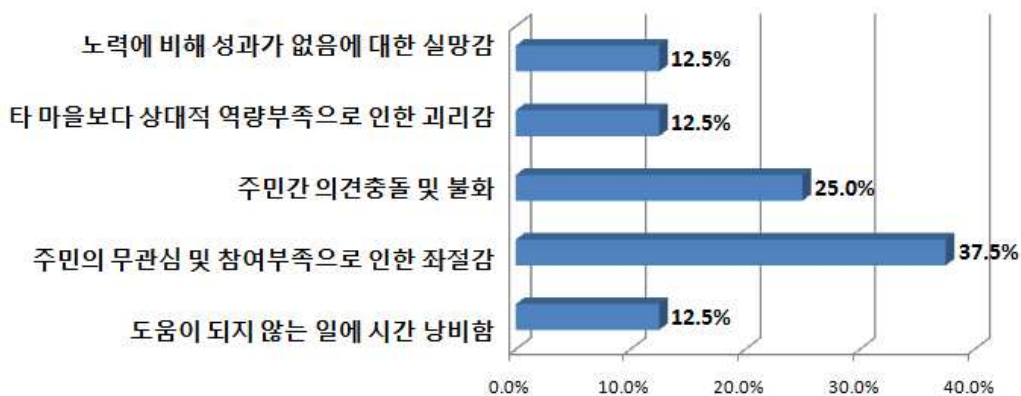


3) 부정적 변화 내용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전에 비해 수립 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으로는 ① 마을발전

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및 참여부족으로 인한 좌절감(37.5%), ② 계획수립 과정 상에 주민간의 의견충돌 및 불화 등으로 인한 갈등심화(25.0%), ③ 마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후회(12.5%), 타 마을에 비해 잠재력이나 역량이 부족함을 알게 됨으로 인한 괴리감(12.5%), 노력에 비해 성과(우수 마을 선정, 후속 사업지원 등)가 없음에 대한 실망감(12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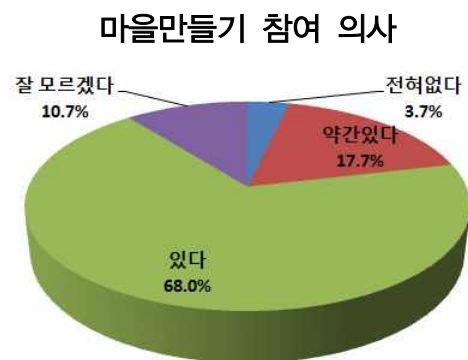
마을발전계획 수립 후 부정적 변화 내용



6. 마을주민 참여 의사 및 마을만들기 과제

1) 마을주민 참여 의사 및 역할

- 마을발전계획 수립 이 외에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, 대부분의 주민(85.7%)이 참여의사가 있음을 보였고, 반면 일부 주민(3.7%)은 참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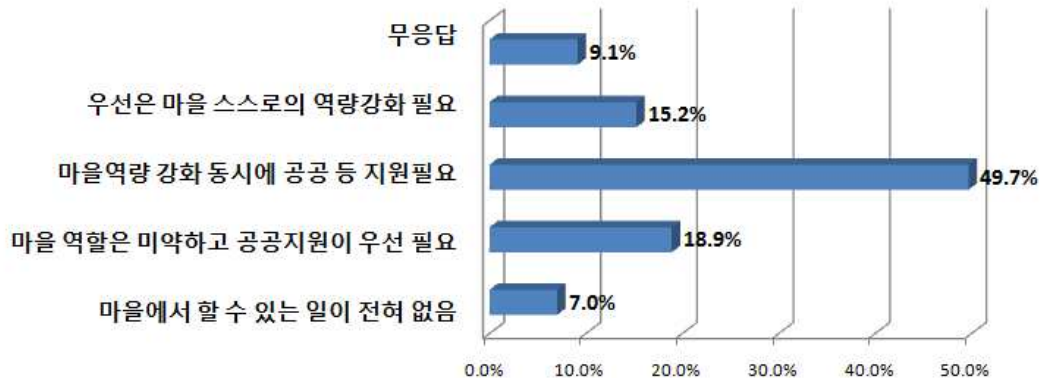


2) 마을(주민)의 수행 가능한 역할

-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에 참여시 마을(주민)이 마을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마을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(49.7%)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,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약하고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18.9%를 점유함

- 반면, 외부의 도움보다는 마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는 답변도 15.2%를 점유하였고, 고령화, 인구감소 등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7.0%나 제시되어 전반적으로 내발적 발전보다는 외부 역량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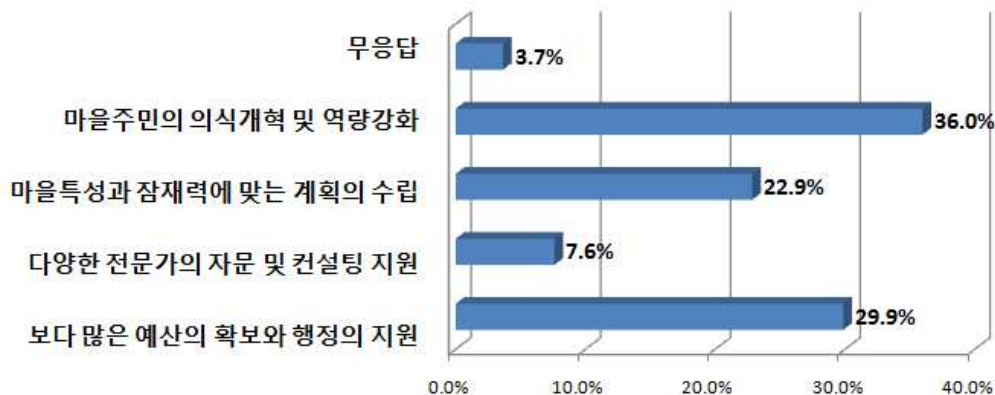
마을발전을 위해 마을(주민)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



3) 마을만들기 과제

- 향후 성공적인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우선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(36.0%)이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행정(도청, 시·군청, 읍면사무소 등)의 지원(29.9%),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(22.9%) 등의 순서로 의견을 보임

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



Ⅲ 요약 및 결론

-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 추진된 마을만들기(마을발전계획)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토의를 개최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의식변화, 성과 및 문제점, 향후 과제 등을 도출하였으며,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1) 주민참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, 외부역량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도 일부 나타남

- 주민 참여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높았거나 처음에는 낮았다가 높아진 경우의 비율이 56.4%로 과반수이상을 보이고 있으나, 44.4%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낮았거나 처음에는 높았다가 낮아진 경우를 보이고 있어 참여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
- 마을자원 및 사업 도출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, 아직까지 외부역량에 의존하는 경향도 상당수(39.1%) 보이고 있어,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

2) 마을발전계획 내용 및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불만족 문제는 여전히 존재

- 2013년 마을발전계획 내용 및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
- 특히, 2012년과 마찬가지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내용에 있어 전체 주민의 합의가 없이 소수 몇 명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외부주체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불만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
- 마을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농번기 등 영농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일정이나 주민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내용 등에서 불만족 의사를 보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

3)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됨

-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과정상에 주민참여도가 점점

높아졌으며, 대부분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

- 주민 의식변화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주민의 비율이 70.1%로 나타나 주민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의 큰 성과가 나타남
- 특히,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고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단합의 기회가 된 것으로 나타남

4) 마을만들기 참여의사는 있으나 아직은 외부역량 의지 성향이 강함

-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주민의 비율이 85.7%로 높게 나타났으나, 실제 마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을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9.7%,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8.9%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내발적 발전의지보다는 외부 역량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

5) 마을만들기 향후 과제로 더 많은 주민의 의식개혁과 역량강화가 제시됨

- 향후 성공적인 「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」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우선 마을의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한 마을주민의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와 행정(도청, 시·군청, 읍면사무소 등)의 지원, 마을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마을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의견을 보임